

### 목숨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것

모든 것에 축복을...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글



울지 않는 달

이지은 글·그림, 창비, 1만6000원

그림책 작가 이지은이 소설가의 옷을 입고 독자들을 만난다. 이지은이 직접 이야기를 짓고 삽화를 그린 소설 '울지 않는 달'은 어느 날 하늘에서 땅으로 푹 떨어진 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설은 하늘에 뜬 달이 인간들의 온갖 기도와 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들은 달님, 달님 하고 제멋대로 달을 부르며 자꾸만 두 손을 모아 빈다. 그 기도를 들어 줄 전지전능한 힘 같은 건 없기에 달은 그만 귀를 틀어막고 세상 밖으로 사라지고 싶다.

그런데 불현듯 알 수 없는 이유로 달은 땅에 떨어진다. 눈을 감을 수 있고 손이 돌아오고 심지어 몸을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희미한 어린아이의 울음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 아이를 구한다.

늑대의 이름은 카나. 그렇게 달과 카나와

아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생의 한 페이지가 시작된다. 아이는 자란다. 먹고 놀고 배우고 앓고 회복한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순간 카나가 곁에 있다. 달은 그런 카나가 신기하고 의아하다. 무엇이 카나를 움직이게 하는 걸까.

이들의 삶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자연 파괴로 터전을 잃은 멧돼지들이 호시탐탐 이들을 노린다. 결국 더 이상 멧돼지들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닥쳐오는데...

달과 카나와 아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얗고 둥그런 달의 몸 곳곳에 금이 가서 마침내 어두운 폭포 앞에 서게 되는 전개 끝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간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와 끝내 연결되어 있을 그 답을 작가는 겹겹의 이야기 속에 포개어 담아낸다. 임유이 기자lye@skyedaily.com

# '뜰끼' 무장 김혜수... 쏙 빠져드네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가 화제다. '트리거' 장면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안에 들어 가서 증거를 찍어야 해. 그래야 나쁜 짓을 멈추니까. 다른 이유? 그만 거 없어."

비장한 얼굴을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 '트리거'의 탐장 오소룡(김혜수 분)은 팀에 새로 들어온 '중고 신입' 한도(정성일)에게 직업의 사명감에 대해 열변을 늘어놓는다.

듣고 있던 모두가 숨죽인 사무실의 정적을 깬 것은 신입의 한마디. "굳이? 왜요? 그건 너무 올드하잖아?"

2화까지 공개된 디즈니+ 새 시리즈 '트리거'의 주인공들은 능력 있고 정의로운데 하나같이 '뜰끼'가 충만하다.

찰도 해결하지 못한 강력 사건들을 끝까지 추적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이야기를 박진감 있게 펼쳐낸다. 사이버 종교·동물 학대·스토킹 범죄 등 현대사회의 어두운 범죄와 사건사고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다뤄는데, 이를 무겁게만 끌고 가진 않는다.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현실성보다는 속 시원한 사이드에 초점을 맞춘다. 오소룡과 팀원들이 기발한 방법으로 취재를 하나씩 해 나가는 전개 자체는 다소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오소룡이 카메라 앞에 서서 촌철살인 대사로 정의를 구현하는 장면은 카타르시스를 안긴다.

## Disney+ 새해 첫 시리즈 '트리거' 인기몰이

사명감 뚝뚝 뚫는 탐사보도팀 강력사건 끝장 추격 정의구현 익살·똥똥치 연기로 웃음 선물

등장인물 코믹 케미 흥미진진 허벅지 근육 다쳐도 온 몸 열연 정성일·주종혁 명품 조연 변신

팀의 중심에 서 있는 오소룡은 이름만큼이나 독특한 캐릭터다. 시청률 1위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간판 MC인 그는 취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장전된 총구 앞에서 오히려 "봐 보라"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낙하산을 타고 출입이 막힌 지역에 잠입하기도 한다.

'트리거' 팀의 신입 한도도 "포라이" 소리를 자주 듣는다. 선배 감독을 향해 소변을 싸고 욕설을 뱉는 '오줌 테러'를 저질러서 드라마극에서 방출당했다는 소문이 회사 내에 자자하다.

3년 차 조연출 강기호(주종혁)는 오소룡과 한도에 비하면 양반이지만 역시 평범하지는 않다. 오소룡 탐장을 존경하고 한도를 질투하며 또 이들과 울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인물이다.

드라마는 이처럼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들로 모인 '트리거' 팀이 경찰도, 검

무엇보다 등장인물들의 코믹한 케미(호흡)가 웃음을 자아내며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열정 넘치는 탐장 오소룡과 개인주의적인 신입 한도는 사사건건 부딪치고, 다른 팀원들은 고래 싸움에 긴 새우처럼 찢절매며 식은땀을 흘린다.

배우들의 열연도 관전 포인트로 빼놓을 수 없다. 촬영 중 오른쪽 허벅지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몸을 사리지 않고 연기했다는 김혜수는 추격 장면에서의 액션 연기는 물론, 캐릭터의 매력을 살리는 특유의 능청스러운 연기도 기대만큼 잘 소화해 낸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로 이름을 알린 정성일은 전작에서의 도도한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영똥한 '아웃사이드' 같은 모습을 그려 내고, 주종혁은 익살스러운 면서도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로 작품 곳곳에서 웃음을 자아낸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2025년 첫 번째 키워드는 '양심'

최재천 교수의 도덕적 책임·공정성에 대한 통찰



양심

최재천·팀최마준 지음, 더글래스, 1만8000원

최재천 교수의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을 제작·기획하는 '팀최마준'과 최 교수가 협업으로 첫 단행본 '양심'을 출간했다. '최재천의 아마존' 300여 편 가운데 '양심'을 소재로 한 7개의 강연과 방송 내용을 묶었다. 책은 독자와 대화를 나누듯 구어체와 경어체로 진행된다.

저자는 출판물 기법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비양심적으로 살아도 우리 사회에서 크게 비난받지 않는 것 같고, 비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다. 그런 점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했다"고 출간 이유를 밝혔다.

양심은 인간뿐 아니라 포유류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도덕 본능이다. 프랑스 동물학자 프랑수아 드발의 '공감의 시대'에 따르면 초파리도 갈매기도 도마뱀도 양심이 있다. 인간도 양심을 지닌 채 태어난다.

그러나 사회에서 온갖 편견을 경험하면서 양심이 타락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양심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그는 기자회견에서 "가진 자는 함부로 공정을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전했다. 가졌다는 것은 비단 재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돈이든 권력이든 매력이든 그것은 공정을 훼손하고 공평만 앞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진 자들은 별생각 없이 키 차이가 나는 사람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눠 주고 공평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니다. 그건 그저 공평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밖에 책은 △반려동물을 복제하는 것의 의미와 한계 △남방 큰돌고래 '제돌이' 방류 과정 △연구·개발(R&D)비 삭감을 통해 분기 과학 문제 등을 조망한다.

임유이 기자lye@skyedaily.com

## 조선시대 연애는 어땠을까... '책 속에... 사랑'展

8월31일까지 송파책박물관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3일부터 8월31일까지 송파책박물관에서 2025

년 기획특별전 '책 속에 꽃 핀 사랑'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전의 주제는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까지 책 속에 담긴 다양한 사랑 이야기다.

총 4부로 나눠 시대별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과 기록물을 선보인다.

1부 '설렘의 첫사랑'에서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 '춘향전', 황순원의 단

편 소설 '소나기' 등을 통해 사랑이 피어나는 순간의 감정을 조망한다. 2부 사랑의 성장'에서는 1900년대 초반 자유연애운동과 함께 시작된 문화를 소개한다.

3부 4부는 각각 '이별의 자취' 사랑의 서약을 주제로 구성됐다. 이별의 아름답화하는 결혼 문화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황종택 칼럼 신온고지신3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治人治世)의 해법

고전에는 삶의 지혜가 보석처럼 박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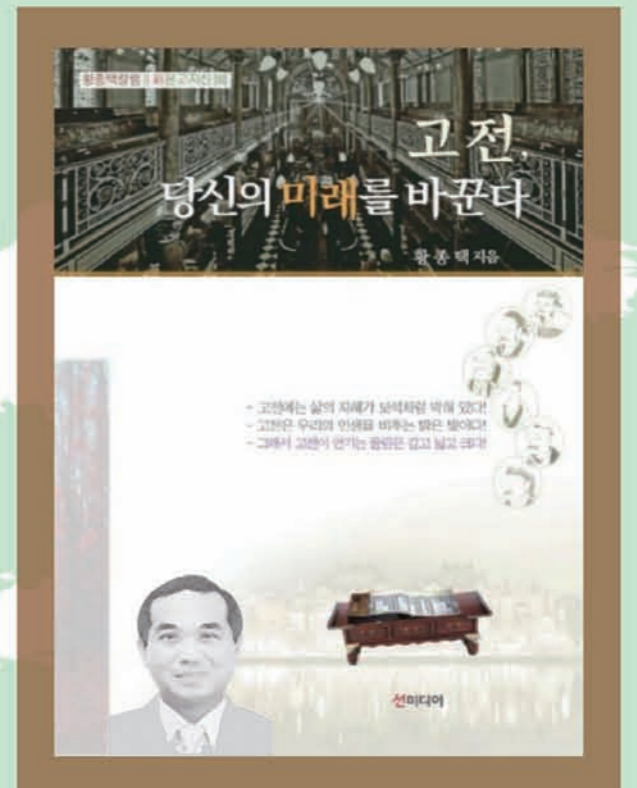
고전은 인생을 비추는 밝은 빛이다!

그래서 고전이 안기는 울림은 깊고 넓고 크다.

"총체적 도덕성 상실의 시대, 고전을 통해 그 문제점들을 들여다 보고 해법을 제시하다!"

고전에는 오랜 역사성과 더불어 세상을 관조함에 심오한 깊이가 있다. 고전은 고금을 관통하는 고귀한 진리이며, 치인치세(治人治世)의 도와 생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만상을 오롯이 품고 있다. 고전은 우리 인생을 밝게 비추는 지혜의 빛이다.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는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인 저자가 날카로운 기자적 시선으로 들여다 본 사회적 문제점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통해 그에 걸맞은 고전의 경구와 지혜를 현 시대인들에게 맞게 해석해 놓은 글 모음이다.



황종택 지음 · 선미디어  
값 14,000원